“모든 우주 현상 본 모습 그대로가 부처님 세상”

선지식에게 듣는다

한국불교 대표적 학승

현해 스님(월정사 회주)



크리스천이던 현해 스님은 24세 되던해인 1958년, 일대사를 해결하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오대산 월정사를 찾아가 머리를 깎는다. 이후 조계종 종비 장학생 1기로 일본 유학까지 거친 스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승으로 거듭났다. 또한 스님은 조계종 원로의원을 지내며, 명실공히 종단의 큰어른으로 추대받고 있다. 본지는 창간 23주년 특집을 맞아 9월 25일 현해 스님이 주석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1동 법종사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다. 법종사는 북한산 주봉들이 시원스레 조망되는 명소에 자리잡고 있었다.

정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연꽃과 같이 중생 속에 뿌리 박고 향기를 풍기는 ‘처염상정’이야 말로 법화경의 근본적 핵심 가르침”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는 순간 다시 구제 받고, 우리 몸도 부처를 모시면 부처가 될 수 있다”

▶현해 스님은

1935년 경남 울산서 태어났다. 1958년 오대산 월정사에서 탄허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6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만화 스님이다. 1992년부터 2004년 1월까지 조계종 제 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소임을 맡았고, 조계종 제3·7·10대 종회의원을 지냈다. 스님은 또한 중앙승가대학과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오랫동안 법화경을 강의했다. 조계종 원로의원을 지냈으며, 지금은 월정사 회주로, 서울포교당인 법종사서 주석중이다. 현해 스님은 평생에 걸친 법화경 강의와 연구 결과물을 한데 묶어 1996년 〈법화경 요품강의〉를 펴냈으며, 이후 산스크리트어본, 한문번역본, 영문번역본, 한글번역본 등 4개 국어 대조본 〈묘법연화경〉을 3권으로 완간하기도 했다. 논문으로는 ‘법화종요연구’ 등이 있다.

법종사는 전통 사찰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고즈넉한 매력을 발산한다. 현해 스님은 2004년 월정사 주지직을 내려놓고 곧바로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근대 선지식인 한암, 탄허, 만화 스님의 월정사 법맥을 이었다. 인사를 드리고 최근 안부를 여쭈니 건강이 좋지 않아 법종사 요사채서 두문불출 한다고 전한다. 스님 앞에 마주 앉으니 직접 가꾼 뽕잎차 한 잔을 우려 준다.

“마셔봐요. 금방 못느끼겠지만, 조금 있으면 차향이 입안에 그윽하게 감돌 겁니다” 다선의 묘미를 잠시 일러주시더니 대뜸 말문을 다시 연다. “근데 내가 쓴소리하는 스님으로 이름나 있어 다들 날 별로 안좋아 할텐데 뭐 하러 왔어요?” 스님은 기자에게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오늘은 학승으로서의 학문적 세계를 듣고 불자들에게 발심수행과 공부를 하도록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인터뷰 취지를 말씀드리자 고개를 끄덕인다.

사실 현해 스님은 법화경(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연구의 권위자중 한분이다. 〈법화경 요품강의〉 〈묘법연화경〉 〈법화종요연구〉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내놓으며, 법화경 연구만 35년, 강의만 30년 이상을 했다. 자연스레 스님과의 대화는 부처님이 직접 설한 〈법화경〉으로 옮겨 갔다. “부처님은 45년 동안 진리를 설파하셨죠. 초기 말씀은 초보적인 가르침을 담은 원시경전이고, 나중에 설한 내용은 철학이 가미되고 가르침이 깊어져 대승경으로 부릅니다. 바로 법화경은 화엄경과 함께 대승경의 백미이죠”

〈법화경〉은 진흙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 중생들이 번뇌 가득한 세속에 살면서도 반드시 성불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설파한다. 특히 ‘법화칠유(法華七喩)’라 일컫는 여러 가지 비유와 각종 인연담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아 대중들에게 친숙하다.

그렇다면 현해 스님이 〈법화경〉 공부에 몰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법화경〉서 ‘한 생각 가운데 삼천세계가 있다’는 말에 의문을 품고 향학열에 빠져 있을때, 때마침 종단에서 학비를 대주는 1기 종비생으로 동국대에 입학했죠. 그리고 다시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면접을 치르는 데, 당시 불교대학원장이신 김동화 박사가 연구 주제를 물어보더군요. 일념 삼천세계를 연구하고 싶다고 답하자 그것은 천태사상인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립디다. 법화경은 천태종의 소의경전(所依經典)이어서 제가 몸담고 있는 조계종 하고는 안 맞는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한번 마음먹은 것은 기필코 해내고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 현해 스님은 흔들림 없이 법화경 연구를 시작했다. 스님은 동국대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1973년 일본 고마자와대학 불교 장학생으로 뽑혀 일본 유학 길에 올랐다. 그는 고마자와대학서 불교학 박사과정을 마친 뒤 다시 와세다대와 다이쇼대서 동양철학과 천태학을 연구했다. 총 8년 6개월을 일본서 천태학 연구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다.

현해스님은 한마디로 “연꽃과 같이 중생 속에 뿌리를 박고 향기를 풍기는 ‘처염상정’의 가르침이야 말로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설명한다. 1982년 조계종 중앙승가대학이 생기면서 학장을 맡은 석주스님이 그를 찾아와 써준 ‘處染常淨’(처염상정)의 글은 지금도 현해 스님이 평생 머리맡에 걸어두고 되새기는 글귀다. 더러운 곳에 처하더라도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한 연꽃 같은 삶을 살라는 의미인데, 법화경의 정신이 담겨 있어 더욱 평생의 좌우명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한다.

현해스님은 중앙승가대학과 동국대 불교학과서 오랫동안 법화경을 강의했다. 이어 스님은 법화경 강의에 다시 말을 잇는다. “대승불교 사상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법화경은 독송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경전으로 깊은 종교적 신심이 들게 만듭니다. 자연스러운 비유나 예화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실제 수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제시돼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님은 평생에 걸친 법화경 강의와 연구 결과물들을 모아 지난 1996년 ‘법화경요품강의’를 펴냈다. 또한 2007년에는 산스크리트어본·한문번역본·영문번역본·한글번역본 등 4개 국어 대조본 ‘묘법연화경’을 3권으로 완간하는 저력을 보였다.

“법화경은 총 28품으로 돼 있는 데, 인간이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단계에 맞게 가르침이 담겼지요. 첫째는 방편사상이 특징이고, 둘째는 부처의 가르침을 믿어야 한다는 신앙심을 강조하며, 셋째는 보살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 현해 스님은 법화경 ‘상불경보살품(常不輕菩薩品)’에 나오는 예화 한 자락을 소개한다. “옛날에 상불경보살이 있었어요. 이 보살은 어느 누굴 만나든 합장한 채로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을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무척 좋아했죠. 하지만 이 보살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자 그만 화를 냈답니다. 그래서 그 보살을 데려다 욕하고 때렸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지옥서 과보(果報)가 끝나자 세상에 나가 상불경보살의 말을 들으면 부처가 된다는 말을 그대로 실천해 마침내 부처가 됐다는 이야기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사람을 해치면 끝내는 자신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는 순간 다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바로 법화경이 주는 커다란 교훈이죠.”

이어 스님은 인터뷰때 마다 들려 주는 이야기라며 약왕(藥王)보살에 관해 말했다. “하루는 약왕보살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있다가 주변 중생들이 업장이 너무 두터워 설법을 듣고도 깨칠 줄 모르자 자신이 대신 참회하겠다고 말했죠. 약왕보살은 즉시 행동에 옮겨 합장한 채 자신의 손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한 1만2000여명의 대중이 저 보살은 죄가 없으므로 우리가 대신 참회할 테니 보살의 몸을 원상태로 돌려주십시오 라고 부처님께 청을 했죠. 대중은 나무석가모니불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천지가 진동하면서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죠. 물론, 부처님은 대중의 청을 들어줬습니다. 이 이야기 역시 어떤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듯이 우리 몸도 부처를 모시면 부처가 된다는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해스님에게 법화경중 제일 좋아하시는 구절을 청했다. “‘諸法從本來 常自寂滅相 佛子行道已 來世得作佛(제법종본래 상자숙멸상 불자행도이 내세득작불)’이라는 법화경 ‘방편품’에 나오는 구절을 좋아합니다. 진리로 가는 길을 찾아내는 탁월한 통찰력이 담긴 감로법문이 바로 법화경임을 잘 대변해 줘서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죠. 모든 우주 현상의 본래 모습 그대로가 부처님의 세상이요, 열반의 세상이기에 부처님 제자들이 이것을 실천하면 그대로 다음 세상에 부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리를 뜨려는데 현해 스님이 앉은 뒤편 벽면에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다. ‘苦海寶筏(고해보벌)’이라는 편액이다. 한 눈에 글과 의미가 범상치 않아 뜻을 묻자 스님이 답했다.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하는 벽안 스님으로부터 받은 글이죠.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보배로운 배라는 뜻인데, 모든 사람을 태우고 고해를 건너는 큰 배가 되라는 어른스님의 가르침이라 매일 보면서 되새기는 글귀입니다.”

